

웰빙을 위한 지리교육의 실제와 방향 :
한국 초·중학교 사회과 지리교육 과정을 중
심으로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웰빙은 21세기의 교육적 가치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 OECD(2018)가 교육 2030에서 교육목적으로 웰빙을 제시하면서, 웰빙은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행 2022 개정 사회과 지리교육과정도 웰빙을 교육목적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목적으로서 웰빙,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 웰빙의 내용, 그리고 웰빙을 위한 지리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 교육목적으로서 웰빙

웰빙의 정의는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웰빙의 대표적인 정의로는 화이트(White, 2011)를 들 수 있다. 그는 웰빙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정의에는 웰빙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 그리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는 개인의 선호와 욕구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과 이를 통한 타자 또는 사회와의 외재적인 관계 맺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삶은 타자와 사회와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결과적으로, 웰빙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한 성공적인 삶을 지향한다. OECD(2018)도 미래 사회의 교육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성을 지닌 인간

을 길러내고 변혁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결국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화이트와 OECD의 웰빙 교육을 결합하면, 자신의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는 개인의 웰빙, 그리고 타자 또는 사회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삶은 사회의 웰빙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는 개인의 웰빙은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가치 있는 삶의 추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외재적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의 웰빙은 사회적 관계, 시민적 참여와 경제적 공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웰빙 내용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교육목표를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교육부, 2022a)로 제시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웰빙 대신에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웰빙의 입장에서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적 성장’은 개인의 웰빙을,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은 사회의 웰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22b) 중 중학교 지리 영역의 성취기준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웰빙’, ‘자신과 타인 및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으로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웰빙은 자신, 타인, 공동체, 지구촌 구성원 전체라는 수준에서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은 다중 스케일을 토대로 한 웰빙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스케일은 개인의 웰빙을, 그리고 타인, 공동체,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스케일은 사회의 웰빙을 지향하

고 있다.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내용을 개인의 웰빙과 사회의 웰빙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웰빙은 초등학교에서는 장소 경험과 장소감, 지리적 문해력, 지리 탐구, 자연환경과 사는 곳에 대한 감수성, 살기 좋은 환경의 조건 등,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지리의 힘, 장소감과 장소성, 지역의 문제와 발전 전망, 지리정보기술의 활용, 지리적 시각화, 자연경관에 대한 호기심,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감수성, 글로벌 쟁점에의 관심, 평화 감수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삶, 즉 개인의 웰빙을 성취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의 웰빙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지리 문해력, 다양성의 이해,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인류 공동 문제, 분단과 평화의 장소 등,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상호연계성, 문화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 및 실천, 지역 불균형, 글로벌 환경 이슈, 글로벌 시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타자, 공동체와 지구촌 구성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삶, 즉 사회의 웰빙을 성취하도록 한다.

셋째, 다중 스케일에 기반하여 웰빙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 사회와 세계 수준의 스케일을 중심으로 웰빙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local)과 세계(global)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글로벌(glocal) 웰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은 자신이 사는 고장과 지구촌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웰빙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이곳’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웰빙과 ‘미래, 저곳’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웰빙을 균형감을 갖추도록 하고 있

다.

넷째, 개인의 웰빙은 지리적 감수성, 장소감, 여행, 탐구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웰빙은 학생의 지리적 사고, 관점, 역량을 개발하여 다중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제에의 참여하고 해결하여 사회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에서는 개인의 웰빙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개인의 웰빙과 사회의 웰빙이 균형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 웰빙의 수준과 내용에 차이를 두어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웰빙과 함께 사회의 웰빙을 이룩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Ⅲ. 웰빙을 위한 지리교육의 방향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개인의 웰빙과 사회의 웰빙을 성취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지리 수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일이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웰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리 탐구, 지리 정보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웰빙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주관적 웰빙인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삶의 장소 여행, 지리 여행, 매력적인 여행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리교육은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개인의 웰빙과 함께,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존재하는 불평등, 부정의, 불공정으로 인한 갈등, 쟁점, 전쟁, 차이, 차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문제들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도록 하는 사회의 웰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리교육

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과 세계 속에서 지리 문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웰빙과 사회의 웰빙을 성취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부(202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The Future We Want*, OECD Publishing.

White, J.(2011):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London: Routledge.

ウェルビーイングのための地理教育の実際と方向

: 小・中学校社会と地理教育課程を中心に
イ・キョンハン(全州教育大学校 社会教育
科)

ウェルビーイングは, 21世紀の教育的価値として広く認識され, OECDの『教育2030』で目的として提示されたことで, 韓国を含む世界各国で重要な教育目標となっている。韓国の2022年改訂社会科の地理教育課程も, これを直接的・間接的に反映している。本稿は, ウェルビーイングの定義や構成要素を提示し, 特にJ. Whiteの定義である, 個人として内在的価値活動と他者や共同体に全身全霊で向き合い参与する成功的なライフに基づき, 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分類する。

韓国の社会科地理教育課程における個人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ついては, 以下のように提示している。第一に, 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しては, 児童生徒が各々幸せを追求するための地理学習内容の設定, 第二に,

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しては、他者や共同体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考える地理学習内容の設定、第三に、マルチスケールを用いてウェルビーイングを扱うこと、第四に、旅行を用いた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地域やグローバル課題に参与することを提示した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のための内容提示、第五に、初等学校においては中学校に比べて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が多く設けられており、中学校では、個人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がバランスの取れた構成をもつ。

地理教育は、学習者の個人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が達成に役にたつ。そのために、地理教育は、学習者が自分のキャリア形成や、AI時代に必要な地理的探究をより具体化し強化する必要がある。さらに、地理教育は、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ともに地域社会やグローバルにおいて存在する不平等、不正義、不公正による葛藤、論点、戦争、差異、差別などの課題により関心を払うように、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達成するように提示する必要がある。

(翻 訳 : Yang JaYeon)